

Midwest 가족의 밤, 예배와 음악회 열어

Midwest University 개교 32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박동호 목사는 지난 4월 26일(목) 오후 4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스카이라운지에 Midwestern 가족의 밤 1부 예배와 2부 설립자 총장 제임스 송 박사의 메시지 및 내빈소개, 3부 개교 32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Music Concert가 진행되었다.

특송을, 총동문회장 박동호 목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 대표회장)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는 동영상 편집되어 지저스타임즈 JTNTV http://jntv.kr에서 흡피 상단 동영상 클릭하시면 자세히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JTNTV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2부 설립자인 총장, Dr. James Song의 메시지 및 내빈소개가 진행되었다. 제임스 송 총장은 인사 말씀을 전하고 학교 근황을 설명하면서 학과신설 :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 두뇌개발, 영재교육, 사역 리더십 국제항공리더십 Ph.D.in Leadership, MB, MM, DMA 등을 설명했다.

미국명예 시민증 수여, 영세전 박사 교수 임명장 및 Name Tags 국제경영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이영행 교수, 이태광 교수, 이운주 교수, 내빈과 대학별 교수 및 학생을 소개했다. 이어 고가제작(작사 전희준 박사, 작곡 박재훈 박사)은 김충 박사, 사역 리더십 국제항공리더십 Ph.D.in Leadership, MB, MM, DMA 등을 설명했다.

1부 예배 Worship Service 총동문회 회계 배민아 박사(Midwest 교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오신중 박사(대구중흥교회)가 기도를, 김병래 박사(기도하는한방병원 원목)가 성경(롬8:28)봉독을, 문익환 교수(Midwest 교수)의

이어 정근모 박사가 축사를, 총동문회장 박동호 목사가 발전기금 작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자가 광고를, 김금운 목사(직전 회장, 마포제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정근모 박사의 축사, 박동호 목사의 발전기금 작정과 김금운 목사의 축도 등은

이어 State of Missouri Ambassador 미주리주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 한승호 대표, 에스더 한, Honorary Citizen City of Wentzville, Missouri, USA, Mayor, Nick Guccione 축하음악회가 막을 내렸다.



웨신총회 2018년 2차 강도사고시 19명 응시

나를 부르시고 곧세게 하시는 하나님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고시부는 지난 4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총회본부에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예정자(M.Div)와 목회최고지도자과정(AMP) 졸업자 등 19명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1부 예배에 고시부 부장 오상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부총회장 신연창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사 41:8-10절을 주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설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고시부는 지난 4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총회본부에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예정자(M.Div)와 목회최고지도자과정(AMP) 졸업자 등 19명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1부 예배에 고시부 부장 오상열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부총회장 신연창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사 41:8-10절을 주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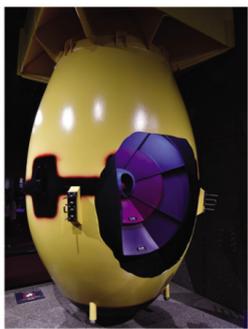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에 이제 종이 할 일은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장 2절)이다. 그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종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히13장 5절) 곧세게 하시는 하나님(요 14:18절 이하)이다. 하나님의 종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손으로 불드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사41:10)이다. 이제 과거의 상처와 실패한 경험, 원망, 불평, 증오와 미래의 염려를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빌4:6)로 아뢰며 목회자로 부

린 최고의 가치(행 15:5)를 실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총무 김정욱 목사가 광고를, 직전회장 이영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2부에는 총회 세미나실과 회의실 등에서 준비된 강도사 고시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는 참모를 증경총회장 이동근 목사는 포드원역점을 보내와 고시생들을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었으며 광고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강도사연수와 목사안수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이날 강도사 고시에는 제1부 개회 예배, 제2부 필기고사, 설교실기, 면접에 이어 제3부 폐회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늘 마음은 허전하고 영혼은 더 메말라 감을 느꼈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 문제만 떠넘기는 신앙에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즉 신뢰의 대상이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만을 믿고 맡겨주시는 사랑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윤00전도사는 중국 서안00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상하이 소재 한인00교회에서 훈련 및 중국어 강사로 섬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중국은 목회자의 소명을 확신하며 사역을 펼쳐나가 성경적인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현장의 훈련된 목회자의 부족을 전하며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취재부 김정욱 기자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사진은 과거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의 실물크기의 모형이다. 일본은 그 때의 참상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나가사키에 핵박물관을 지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돌아보게 하고 있으며,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수학여행 코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

담도 곧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과거의 북한 괴뢰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 6.15 공동선언, 7.4공동선언 등 하지만 백령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엄청난 도발을 자행했고,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왜 이처럼 퍼주지 못해 안달이며 북측 입맛에 맞게 양보를 다했다.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켜지지 않는 백가지 화려한 약속보다 지켜지는 한가지의 약속이 중요하다. 모쪼록 이번에도 도출해 낸 남북간의 약속들이 전철을 밟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2018년 총회교역자 부부 하계수양회 공고

주제: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목회 (행 9:31)

노회와 총회가 단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은 기쁨입니다.

- ◆ 일시 : 2018년 5월 28(월)~30(수)일 2박3일(부부함께 참석해주세요) 접수 오후 5시까지
- ◆ 장소 : 토비스콘도
- ◆ 주소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로77번길 39, (도고면 기곡리)
- ◆ 전화 : 041-541-5432 ◆ 회비 : 부부 14만원 1인 6만원
- ◆ 접수 : 5월 10일까지 ◆ 연락 : 교육부 서기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 ◆ 후원 : 총회장 이규필 목사 100만원,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김영국 목사 : 각 50만원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 서동기 목사 : 20만원, 각노회 후원 : 20만원
- ◆ 교육부장 : 강대일 목사 010-3919-5113
서기 :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총무 조영만 목사 010-5355-2584

총 회장	교육부장	총무 총무	교육부 서기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김관호 목사 (세향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본 교단 합동보수는 뜻을 같이 할 개인과 교단, 교회와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인물탐방 / 박태규 지부장과 출소자 복지에 대해 특별대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터!

JTNTV 지저스타임즈 취재부장 이기학 기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 지부 박태규 지부장을 만나 출소자 복지에 관하여 특별대담을 나누었다.

이기학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 지부장께서 저의 신문방송 국내외의 많은 독자 분들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서 진솔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지부장 ▶공단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보호대상자의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며, 이들의 재범방지와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재범방지 중추 기관으로 나눔과 포용,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란 모티브를 가지고 보호대상자, 직원, 자원봉사자가 일심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의 내실화, 법무보호서비스 전문화, 법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대 국민 참여 및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저는 보호사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남성 출소자와, 둘째는 여성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우선 남성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 기초소양 교육 : 주민행동, 생활·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신용회복 및 금융, 보건상식, 생활법률 등의 안내 및 교육, 2. 체험교육 : 유적지참관, 선진산업시설 견학, 공연 관람 등 체험활동, 3. 봉사 활동 : 사회복지시설 및 수해·재해지역에서의 봉사활동, 4. 심리 치료 : 집단상담, 미술·원예·웃음 등을 통한 심리치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여 드렸으며, 여성 보호대상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경기남부지부에서 여성기술교육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 여성 범죄는 5년간 증가 추세로 평균 17.7%에 달하며, 여성 수형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형생활 중 이혼 및 가정해체위기를 경험하며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가 사회에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해 자녀의 학업중단 및 문제 청소년 전락 등으로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 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가족을 방치할 경우 범죄대물림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 범죄대물림 현상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부에서는 사회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인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부부사랑행복캠프, 가족화합 소통캠프, 자녀성장 진로캠프)도 함께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술교육으로는(바리스타 2급,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 제빵기능사과정, 의류수선 및 리폼과정, 퓨전 떡과 정)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후에는 공단에서 일자리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공단 여성기술교육원의 전신인 심미생활관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 5년간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를 진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있으며, 2016년~2017년 경기사회복지모금 3,000만원 / 2017년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으로 6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3,600만원의 지역사회 외부 자원유치로 여성출소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주거지원에서 출소하신 분들 중 가족이 있는 분들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문제는 혼자인 경우에는 주거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는 없는지요?

박지부장 ▶공단에서는 무의탁 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숙식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1명의 보호대상자가 숙식제공을 받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공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직원들의 지도아래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식제공을 받다가 취업활동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실제 범죄대물림 현상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부에서는 사회성향상교육 프로그램(인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부부사랑행복캠프, 가족화합 소통캠프, 자녀성장 진로캠프)도 함께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술교육으로는(바리스타 2급,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 제빵기능사과정, 의류수선 및 리폼과정, 퓨전 떡과 정)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출소하신 분들이 공단 안에 있는 숙소에서는 길게는 2년 동안을 거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숙소에 있으면 일정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에 거거하지 않고, 주거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박지부장 ▶공단에서는 자체 기술교육원을 전국적으로 7곳을 운영하며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울산에서는 용접

기술교육, 전북은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남-밀링·선반, 충남-자동차 정비, 경기남부-커피 및 조리기능사, 경북-전기기술 교육) 나머지 직업훈련은 일반학원에 위탁을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은 자동차 운전면허, 특수차량 운전면허, 자체차 및 굴삭기 건설기계조정면허, 한식·양식·중식 조리사 교육, 피부관리사 및 미용사 자격증 과정 등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 과정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기술을 배운 분들 중에는 창업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혹시 창업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창업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창업지원금이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으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박지부장 ▶공단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구 중소기업재단)과 연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단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창업지원심사회에서 엄격한 심사(유형업 및 위법 가능 업종 제외)를 거쳐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의 지원이 되며 연 3%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비용으로만 사용 되고 사업비, 운용비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하며, 공단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학 ▶박지부장님 혹시 대구지부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현재는 빵집을 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로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군 전역 후 26살에 새마을 금고에 입사하여 34살에 상무로 진급하여 실무책임자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실직에 눈이 멀어 부실대출로 인한 사기로 수감생활을 한 대상자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녀 3명(당시 중3이던 딸, 중학교 1학년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는 45세 파산자인데 돈조차 없게 된 운영 하고자 공단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이후 공단에서 주거지원도 받아서 현재는 개인채무도 많이 갚고 중3이었던 딸은 교대에 재학중이며,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은 의대에 다녀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출소하신 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가족지원은 주거지원, 합동결혼식, 가족회복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2005년부터 LH공사와 연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자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최장 10년), 합동결혼식: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무료 합동결혼 실시 및 후원 물품 지원, 가족회복: 공단 심리상담사나 보호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학업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JTNTV 지저스타임즈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또한 법무복지공단의 금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연 평균 6만 명의 사회로 복귀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

제과·제빵사 교육과정을 이수자들이 현장 실습 및 커피와 음료, 제과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성출소자 일자리 창출과 취업연계 사업을 통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보호대상자들에게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 자녀(초, 중, 고등학생)에게 학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으로는(학숙교재, 학습준비물, 학용품, 교복, 교통카드, 급식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고, 간접지원(문화체험활동참여 및 공단 대학생 위원회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학습 지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출소하신 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가족지원은 주거지원, 합동결혼식, 가족회복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2005년부터 LH공사와 연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자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최장 10년), 합동결혼식: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무료 합동결혼 실시 및 후원 물품 지원, 가족회복: 공단 심리상담사나 보호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학업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학 ▶JTNTV 지저스타임즈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또한 법무복지공단의 금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지부장 ▶연 평균 6만 명의 사회로 복귀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

은 더 이상 감추고 덮을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온 공단은 설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참여를 높이고, 가정복지사업과 기술교육원의 지속적 설립·운영, 효율적 취업지원 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서비스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밖으로는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국민적 동참과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이끌어 가는 일, 나아가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학 ▶지금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 지부의 박태규 지부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당해 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결졸을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 출소한 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출소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부장 이기학 기자
회로 복귀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

삼각산에 기도처소 개방되기를...

원로목사·평신도지도자 등 크리스천 350여명 쓰레기 줍고 자연보호 캠페인

지난 28일, 교회 원로목사와 평신도 지도자 등 350여명이 삼삼오오 서울 삼각산(북한산)에 올랐다. 삼각산 주위의 쓰레기를 줍고 깨끗한 자연을 만들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캠페인에 앞서 두 손을 모으고 "주여, 주여..."를 앞다투 외쳤다. 마치 70-80년도 기도의 함성소리가 되살아난 듯 감회가 새롭다. 통성기도는 한참이나

계속됐다. 찬송 '참 아름다워라'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삼각산은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눈물의 동산' '기적의 동산' '능력의 봉우리'로 불려진 기도의 성산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 주말이면 산 속 곳곳에 있는 100개가 넘는 기도처소와 제단에서 기도소리가

저런저런 울렸다. 김익두 길선주 한상동 강달희 신현규 조용기 이만신 김홍도 피종진 이태희 목사



등 수많은 목회자들도 산기슭에서 해답을 찾곤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나온 임원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은 "삼각산은 한국기독교의 기도의 요람이요 부흥의 요람"이라며 "하지만 요즘은 기도의 발길이 많이 줄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민족의 기도처소로 다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정근모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는 "목회자들은 산기슭을 새벽기도와 함께 한국교회의 자산으로 꼽는다. 산기슭은 편안한 교회의 의자보다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대화에 집중하려는 불퇴전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수거한 쓰레기 분량은 20t이 넘었다. 라면이나 과자봉지, 심지어 음식물쓰레기와 긴 의자, 책상, 방석, 침대까지 버렸다. 여행 가방과 옷, 신발, 생활용품 등도 눈에 띄었다. 산에 오른 이들에게 자연공원법 과태료 부과 기준이 쓰인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삼각산 자연보호협회, 서울지구총교회 자연보호위원회, 한국기독교연론재단 자연보호위원회,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자연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주태 삼각산 자연보호협회장은 "기도원에 다니는 원로목사님들이 삼각산에 쓰레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하반기에 삼각산 청소소를 한번 더할 것"이라며 "조만간 방음이 잘되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참된 개인 기도처소 30곳을 설치하겠다. 크리스천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사세요"



▲ 만리장성에서 제19회 살롬 경로잔치가 열리고 있다.

제19회 살롬 경로잔치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소망의공동체인 살롬장애인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로하신 장애회원들과 그 가족을 초청해서 "제19회 살롬 경로잔치"를 지난 1일(화)한인타운 내 위치한 있는 중식당 만리장성에서 개최했다. 대표 박모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경로잔치 예배에서 김명숙 전도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박모세 목사는 "누가 내 가족인가(마태복음 12:46-5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들 가정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이다. 하나님의 큰 뜻은 첫째, 영혼구원에 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어져 가이반 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행이 이뤄져야만 한다. 오늘날 무너져 가는 가정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고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박모세 목사는 연로하신 장애회원과 그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개별적으로 일일히 악수를 나누는 뒤, 맛있는 점심을 대접했다. 이현욱 기자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피종진 목사 이장: 하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빌딩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intvc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경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포항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교정시설 현장 점검 및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 4월 19일(목) 포항교도소(성명환 소장)를 방문하여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포항교도소 정책현장을 둘러보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수용자의 처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처

우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저녁 6시에는 필로스 호텔 그랜드홀에서 강승걸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을 비롯한 교정위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그동안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이근석, 이창규, 하은혜, 이재용 위원 등 4명의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 상했다.

수상한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교화상담 및 무연고 수용자 지원, 신앙을 통한 심성순화, 출소자 취업 알선 등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 인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

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수형자 집중인성교육과 개별처우계획 등 교정본부의 중점추진 정책을 소개하면서 말에는 '책망과 격려하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교정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교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취재부장 이기학 기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나갈 터”

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 후원의 밤 개최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따라오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다 민족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총장 신현국 박사)는 지난 28일(토) 오후 5시 채플실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교수 손창호 박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에서 총장 신현국 박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후원의 밤 행사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사랑과 격려로 아껴주시고 기도도와 물질로 아낌없는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 신정남 박사가 대표기도를, 교수 강순해 박사가 성경봉독(사사기 2:6-10)을 한 후, 정인석

목사가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 목사는 “사사 시대 혼란한 근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중 여호수아 생존지와 사후의 상황을 대조시킴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기사를 체험치 못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세대들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나 배교를 한다. 이로 볼 때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사랑과 격려로 아껴주시고 기도도와 물질로 아낌없는 도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교수 신정남 박사가 대표기도를, 교수 강순해 박사가 성경봉독(사사기 2:6-10)을 한 후, 정인석

2부 축하찬찬 후, 3부 학교소개와 다민족 감사 찬양 시간에 교수 이수영 박사가 학교소개를 한 후, 다함께 동영상을 시청했다.

교수 조대준 박사가 핀드레이징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한 뒤 김승덕 목사가 한국 성도의 찬양, 네이더 하나 목사가 아랍 성도의 찬양, 이정화 집사가 가야금 연주로 찬양을 하고 케이티 리, 조슈아 고이, 야곱 고이가 캄보디아 성도의 찬양을, 칼리안 아날라, 레한 수브라마니아이 인도 성도의 찬양을, 박성진 성도가 비올라 연주를 한 후, 교수 한기원 박사의 기도로 후원의 밤 행사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이정현 기자

섬김의 참 뜻을 깨닫는 성산교회의 국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은 성도들이 있기에 자랑스럽다는 이 목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국수 나눔 잔치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성산교회 담임 이오종 목사와 성도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4월 1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2갈길 소재 성산교회에서 국수 나눔 잔치가 열렸다.

번화한 거리도 아닌 동네 골목 안쪽,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교회이지만 수년째 이곳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점심에 국수 나눔 잔치를 열어 훈훈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오종 목사와 성도들, 오전 11시 예배당 1층에 마련된 식당의 문이 열리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한분 한분 들어오며 인사를 나누었다.

교회를 다니다 다치지 않던 상



관없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답소를 나누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비록 한 그릇의 국수이지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 마음을 나누고, 속도 든든해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는 시간임을 본다.

봄비가 내리는 습한 날씨가지만 성산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은 불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온 몸으로 느끼는 가운데 국수를 삶아내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손길과 그것을 들고 끌고 날라 주는 손길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사람의 국수 그릇을 받는 어르신들은 연신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하신다. 사랑의 국수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다. 매월 한 번 하는 일이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역 사람들과 특히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준비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성산교회 담임 이오종 목사는 “처음에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섬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지난 3년여 동안 꾸준히 묵묵히 순종하며 국수를 삶아 내고 있는 성산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오늘도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

안산지사 백운성 기자

OC한인회 무료합동결혼식

6월 2일 소스몰 1층 야외공연장

OC한인회(회장 김중대 장로·사직)는 오는 6월 2일(토) 오후 4시 소스몰 1층 야외공연장(6940 Beach Blvd, Buena Park)에서 무료 합동결혼식을 갖는다.

회장 김중대 장로는 “행복한 결혼이란 결코 지루하지 않은 긴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며 “미국생활 중 여유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혼인신고만 하고 결

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미주동포 여러분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행사를 갖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축하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결혼 5년 이상 된 부부를 선발하여 합동으로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과 협동을 도모하고, 이민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사랑 나눔 정신을 대의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



련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714)530-4810 OC한인회

이정현 기자

피종진 목사 5월 국내·외 성회 일정

010-5255-7777
Godb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부총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피종진 목사

- 1(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제212차 해외성회(212nd Overseas Assembly)
- 1(화)~ 3(목) 이스라엘(Israel) 베들레헴세계기도대회 주회: I Pray For All Nation Association
- 4(금) 이스라엘(Israel) 예루살렘 감람산, 깃세마네, 베데스다, 마가다라방 Pray For Jerusalem
- 5(토) 이스라엘(Israel) 사해, 예리고, 골란, 연게디, 맛사다 Pray For Qumran
- 6(주일) 이스라엘(Israel) 베들레헴 예배, 헤브론, 벳엘, 세겜, 사마리아 Pray For Bethlehem
- 7(월) 이스라엘(Israel) 갈릴리, 하울라,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공원 Pray For Galilee
- 8(화) 이스라엘(Israel) 지중해, 가버나움, 가나, 갈릴산, 나사렛, 지중해, 가이사라 Pray For Carmel Mount
- 9(수) 이스라엘(Israel) Closing Revival Worship
- 10(목)~11(금)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14(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안양 소양교회(최은수 목사) ☎ 010-9677-8291
- 14(월)~16(수) 구미 축복교회(이상연 목사) ☎ 010-2595-6722
- 17(목)~19(토) 필리핀(Philippines) 세부 원주민성회
- 20(주)~22(화) (대회장 성경상 목사, 성회위원장 강홍규 목사) 필리핀(Philippines) 민다나오 국제학교성회(대회장 성경상 목사, 준비위원장 김용희 목사)
- 23(수)~24(목) 오산리최자실기봉금식기도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25(금) 오후 서울 하안중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 26(토) 오후 주화: 경기중영노회(노회장 정민철 목사) 필리핀(Philippines) 필라마시 혁신성회
- 27(주)~6.1(금) 주화: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M.E.C)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8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영재교육진흥위원장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민석
사무장로: 공재용, 안중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청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50분, 오후 6시 30분, 9시 1100
주일오전: 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7:00
세례예배: 새벽 6:00
금요예배: 저녁 6:00

무인예배: 서울신학교신학연구원(서울국립교육발전협의회 부속)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대림교회)푸른솔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11번인길 47(영무대) 다음 2차 후문 앞, 수원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H.P: 010-8753-7179
교회: (02)934-1232(대)

...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막 11:17)

예/배/시/간

대 예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주일예배 후 8시
주일예배 후 7시, 유채부 오전 11시
주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주요철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심 야 기 도 회 매일 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잠암동)
☎: (02)934-1232

대한예수교장로회 **번성교회**

2018번성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번성목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 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교회: (042) 523-3191 FAX: 523-3090
E-mail: pjk2863@hanmail.net

■ 靑松 건강칼럼 (636) 신장(腎臟) 투석(透析)

신장병(腎臟病)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내 삶 자체가 한 편의 영화다” 우리나라 톱스타 최은희(崔銀姬)씨가 남긴 말이다. 최은희는 17세 때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하였으며, 6·25 전쟁통에 납북됐다 탈출하였다. 그리고 1978년 북한 김정일 지시로 북한 공작원에게 홍콩에서 납치되었다가 1986년에 탈북한 후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1999년 귀국했다. 92년 동안 드라마 같은 삶을 살다가 지난 4월 16일 병원에 신장투석(腎臟透析)을 받으러 갔다가 사망했다.

신장(kidney)은 모양이 강낭콩을 닮았고, 색깔이 적갈색으로 팔과 같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콩팥’이라고 부른다. 콩팥은 아래쪽 배의 등 쪽에 쌍으로 위치하며, 오른쪽 콩팥은 간(肝)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왼쪽은 횡격막 아래 비장(脾臟)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간의 위치로 인하여 오른쪽 콩팥은 왼쪽 콩팥에 비해 아래쪽에 위치한다.

신장의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하고 길이는 약 10-14cm, 폭은 5-6cm, 두께는 2.5-3cm 정도이며, 무게는 120-190g이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nephron)이며, 사구체(糸球體, 토리)와 이를 싸고 있는 Bowman capsule, 요세관(Renal tubule)으로 구성된다. 토리(glomerulus)를 통과한 여과액은 요세관에서 재흡수 및 분비 작용을 거치고 소변이 만들어진다. 좌우 신장에는 각각 110만-16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

우리 몸의 비뇨기계(泌尿器系)는 체내의 배설물인 소변을 만드는 신장(腎臟)과 소변을 보관하는 방광(膀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변은 신장에서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신장의 기능을 1)대사(代謝)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 기능, 2)체내 수분(水分)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 항

상성 유지 기능, 3)혈압 유지, 빈혈 교정, 칼슘과 인 대사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내분비 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콩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혈액 속 각종 노폐물을 걸러내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 혈액이 신장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걸러지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여과(濾過) 작용은 콩팥 안의 작은 실핏줄 문치인 사구체에서 이루어진다.

신장에는 신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약 20%가 항상 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좌·우 신장에는 대동맥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2개의 신동맥(腎動脈)이 연결돼 있다. 심장에서 신동맥을 타고

서 질환의 증상 등이 있다. 신장은 간(肝)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기능을 상실하여도 일정 수준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다. 신장에 병이 있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신장병 질환군에는 신염성 증후군, 신증후군, 무증상성 요이상,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요로 감염, 요로 폐쇄, 신세뇨관 결손, 고혈압, 신결석 등이다.

만성신장병은 신장(콩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감소한 상태로 다음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신장병이라고 한다. (1)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인다. (2)혈액검사에서 신장 기능의 감소가 있다. (3)신장초음파 등 방사선 검사에서 신장 이상소견이 있다. 만성신장병은 1기에서 5기로 나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986년 2,534명에서 2017년 93,884명으로 30년 새 약 40배가 증가했다. 이에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3명은 만성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투석을 받는 환자가 절반을 넘어 심각한 상태이다.

혈액투석(hemodialysis)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시행되는 대체 요법의 하나로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 제거, 신체 내 전해질 균형 유지, 과잉 진행될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다. 신장에 병이 있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신장병 질환군에는 신염성 증후군, 신증후군, 무증상성 요이상,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요로 감염, 요로 폐쇄, 신세뇨관 결손, 고혈압, 신결석 등이다.

만성신장병은 신장(콩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감소한 상태로 다음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신장병이라고 한다. (1)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인다. (2)혈액검사에서 신장 기능의 감소가 있다. (3)신장초음파 등 방사선 검사에서 신장 이상소견이 있다. 만성신장병은 1기에서 5기로 나

주입한다. 투석액이 배속에 수시간(대개 2시간 내지 8시간) 머무르는 동안에 몸속의 노폐물과 수분은 복강의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리하여 배속의 투석액이 노폐물로 충분히 포화되면 이제는 다시 투석액을 관을 통해 배 밖으로 비우고, 새로운 투석액을 배속으로 주입한다. 투석액 교환 과정을 매일 정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투석 도관을 복강에 삽입하는 수술은 입원하여 국소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에 시행하며, 수술 후 2주 정도가 경과하여 완전히 아물게 되면 복막 투석을 시작한다. 투석액을 교환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청결한 방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앉은 자세에서 몸에 연결된 도관과 투석액의 라인을 연결한다. 먼저 배속의 투석액을 비우고 새로운 투석액을 주입하며, 하루 3-5회 처방에 따라 수행한다.

투석도관이 들어가는 출구 부위를 매일 소독하여야 한다. 투석액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균이 투석액을 통해 복강으로 침입하는 경우 복막염(腹膜炎)이 발생할 수 있다. 약 2리터의 투석액이 배속에 주입되므로 복압(腹壓)이 올라가서 배가 답답하거나 탈장(脫腸)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석액에는 높은 농도의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어 포도당이 몸속으로 흡수되면 혈당(血糖)을 높이고 입맛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복막투석은 환자가 투석 방법을 교육 받은 후 가정, 직장 등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독립성은 보장되는 반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투석액 교환, 출구 관리, 체중 조절,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등을 해야 한다.

신장은 신기능이 80% 이상 손상된 후에야 자각증세가 나타나고 급속히 만성신부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평소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적정량 섭취하도록 한다. 수분, 염분, 칼륨, 인 등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한다.

복막투석(腹膜透析)은 환자의 복강(腹腔, 배속)에 부드러운 관을 삽입하고 깨끗한 투석액을

신장은 신기능이 80% 이상 손상된 후에야 자각증세가 나타나

급속히 만성신부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평소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들어온 피는 신장의 사구체에서 분당 120cc 정도씩 여과되어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정상인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배설되는 소변량은 하루 평균 1500-2000cc로 사구체 여과액의 약 1%밖에 안된다. 사구체 여과액의 99%는 체내에 다시 흡수된다.

신장병(nephropathy, kidney disease)이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에는 (1)배뇨이상 증상(통증, 빈뇨 등), (2)소변량의 변화(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3)소변 성분의 변화(혈뇨, 흑탄뇨, 거품이 심한 소변), (4)늑골 척추 영역, 옆구리 혹은 치골 상부의 통증, (5)눈두덩, 얼굴, 다리 등이 붓는 증세, (6)고혈압, (7)요독증 혹은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전신

누며, 5기로 진행된 경우 투석이 필요하다.

말기 신장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ESRD)은 신장이식(移植)이나 투석(透析)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질환이 된다. 신장이식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 방법이지만, 이식할 수 있는 신장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장 투석(dialysis)으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에 막을 내린 KBS-TV 일일연속극 ‘미워도 사랑해’에서 주인공 남녀가 신장이식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투석환자는 유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질환인대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기 신부전을 환자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 혈액을 투석막을 통하여 요독(尿毒)과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동정맥투나 동정맥 혈관 이식편을 통하여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보통 1회 4시간, 주 3회 시행한다.

혈액 투석은 요독 물질의 제거 수준에서 보면 정상 신기능의 10-15%만을 대처할 수 있으므로 투약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과 식생활의 조절이 필요하다. 식이요법(食餌療法)의 원칙은 열량은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요소 질소를 적게 생성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도록 한다. 수분, 염분, 칼륨, 인 등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한다.

복막투석(腹膜透析)은 환자의 복강(腹腔, 배속)에 부드러운 관을 삽입하고 깨끗한 투석액을

3박자 건강칼럼 -74- 김치의 건강학

“제대로 담근 김치를 먹읍시다”



황성우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아무리 잘 차린 음식상을 받아도 김치가 빠지면 맥이 탁 풀리는 것은 비단 필자의 감정은 아닐 것이다. 설사 김치가 있다해도 덜 익었거나 맛이 없으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는 푸념이 절로 나오게 된다. 그만큼 김치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김치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해서 김치의 영양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인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식이나 예방 의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선한 채소와는 다른 차원에서 김치는 풍부한 영양가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담근 김치인가? 김치 흥내만 낸 것인가가 문제이다.

바뀌 말하면 제대로 담근 김치에는 풍부한 영양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김치는 식탁의 무용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김치에는 소금에 절임으로 신선한 배추 안에 있는 영양이 밖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치 자체보다 김치 국물에 영양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치 자체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김치 국물에는 비타민(A, B, C)이 많다.

김치나 김치찌개, 시래기국을 즐겨 먹는 여성들에게 변비가 적은 것은 섬유질 때문이고 김치와 더불어 적절한

양의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 식곤증이 없는 것은 풍부한 비타민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장암이 적은 것은 지방질의 섭취가 적은 것과 더불어 김치의 공헌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렇듯 김치는 백미를 주식으로 고기를 가끔 즐기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보강해 주는 영양의 보고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김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한국인의 “김치에 대한 집념”이 예방의학자인 필자의 시각으로는 생존을 몸부림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김치의 영양은 잘 담근 맛있는 김치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맛있는 김치란? “양념이 골고루 배합된 잘 익은 김치”를 의미한다. 익어야 맛이 있는 이유는 발효작용으로 인한 탄산가스 및 비타민의 증가에 있다.

결국 문제는 김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김치냐?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치를 즐겨 먹되 잘 담근 김치를 먹어야 균형잡힌 영양의 섭취가 가능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색다른 영양식을 찾기보다 최고로 맛있는 김치로 영양보충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리라.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건강한 미인이 되려면,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맛있는 김치를 자주 담그는 수고쯤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지저스타임즈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제위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벌써 창간 12년이 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연탄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672-3031(FAX겸용)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서울 노원구 교회매매

대지. 95평 건평. 250평
용도. 1-3층
임대료 월 450만원
4-5층 교회, 교육관
금액. 24억원
대출. 있음
위치. 서울 노원구 하계동

☎ 010-2868-7302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 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담당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예장(합동보수) 한중노회 제176회 정기노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한중노회(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지난 4월 23일(월)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답동로 30번길 (구월동) 양문교회(한복희 목사 사무)에서 제176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1부 개회 예배 2부 성찬식, 3부 제176회 정기노회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제176회 정기노회를 위해 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한기장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 김관호 목사(세향교회)가 성경봉독(요14:25-31)을, 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보혜사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는 말씀에서 보혜사라고 하신 명사가 성경 어디에서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명사는 아니라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서 세상에 빛을 비추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식에는 강대일 목사(평안교회)의 집례로 조영만 목사(시온교회)가 기도를, 박기철 목사(홍제중앙교회), 권혁화 목사(시온교회) 등이 분병, 분잔 위원을 맡았



으며, 집례를 맡은 노회장 김 목사는 (마26:26-30)절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라는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마쳤으며, 3부 제176회 정기노회가 개최되어 회무처리에서 각 부 보고와 미진안건과 신안건 등을 다루었으며 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현

한중노회의 임원은 노회장 김국태 목사(강서교회), 부노회장 한기장 목사(주사랑교회), 서기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서기 박기철 목사(홍제중앙교회), 회록서기 송창훈 목사(새샘물교회), 부회록서기 최철호(생명나무교회), 회계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회계 한복희 목사(양문교회) 등이다.

사한기보협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 제6회 미스바 회개기도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신학위 원장 김주상 목사(1만교회세우기운동본부 회장)는 지난 4월 24일(목) 오후 1시30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길25, 6층 한기보협 예배실에서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최대권 박사를 초청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신학위 원장 김주상 목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최대권 박사의 특강은 본지 JTNTV 인터넷방송(http://jntv.kr)을 통하여 시청을 할 수 있으며 많은 것을 공감하고 국가와 민족의 자부심을 갈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필히 보아야 하는 최박사의 특강 내용이다.

이날 한기보협 41개 회원교단장들이 모인 가운데 제 6회 미스바 회개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1. 미스바회개 기도회를 위하여 상임회장 신한철 목사, 2.세계선교를 위하여 김정우 목사(예장합동제일총회), 3.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대책을 위하여 김성림 목사(예장제자총회), 4.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이창희 목사(예장합동보수총회), 5.기업인들과 노사안정을

위하여 오동환 목사(예장호헌총회), 6. 한국교회와 한기보협을 위하여 이선한 목사(예장예복총회), 7.동성애반대와 포괄적차별 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이경희 목사(예장보수교단연합총회) 등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어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에서 "보수교단은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면서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성경필사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헌법 개정에도 교묘하게 진행하려는 동성애 및 WCC반대 등 이 문제를 저지하려는 해법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성경필사운동은 필요하며 또한 이 운동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 성경필사운동과 WCC 반대운동,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적극



펼쳐나가는데 있어 공공장소인 서울역과 시청 앞, 또는 국회 앞에서 도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어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유연합회 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성명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적대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점차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였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적대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 평화를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식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 표명과 함께 이를 실천에 옮길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끝나지 않았던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남북이 평화적 공존과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선언이 선언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없다. 합의와 선언은 반드시 책임있는 이행이라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이 분명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도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던 전례로 볼 때 국제사회 제재를 풀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명시적 합의를 이뤘을지라도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남북이 신뢰를 쌓게 될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게 된 것은 분명 매우 큰 성과이나 북한의 핵동결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국제사회 핵사찰과 최종적 핵 폐기로 가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앞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 정상이 발표한 선언을 보며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작이자 출발점이지 끝이자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오늘 남북 정상이 발표한 선언에서 미흡한 부분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미국이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그동안 가슴을 졸였던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들이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높은 산과 숭골 고비들이 이 땅의 1천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사명으로 알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2018. 4. 27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성 목사

세계한인방송협회 'WAKB' 총회신임회장 김명전 선출

전 세계 한인 방송인의 상호 연대와 국제 방송 교류를 목표로 2005년 창립된 세계한인방송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GOODTV 김명전 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WAKB(Worldwide Association of Korean Broadcasters, 이하 WAKB, 세계한인방송협회)는 북미, 남미, 극동, 동남아, 유럽 등 지구촌 17개국 90여개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WAKB는 2012년 서울 제7차 총회가 무산된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6년이 흐르면서 총회 재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집행부를 구성해 1년여 재건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 4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김명전 WAKB 신임회장(사진의 왼쪽 첫번째)

총회를 추스르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할 책임을 맡은 회장으로 GOODTV 김명전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또한 부회장은 CBS 한음길 사장이 선임됐다.

김명전 신임회장은 해외 교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조

국 평화통일의 여운을 모아내는 주축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WAKB는 800만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미디어를 통해 선교사역을 감당해왔던 회원 등 기독교방송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조

을 하고 있는 800만 디아스포라 교민들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끈이 되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국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매우 중요한 행사들이 있다. 교민들은 한국의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신임 회장으로서 해외 교민들의 네트워크를 다시 재구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국의 평화통일의 미래 더 나아가 복음통일의 미래를 감당해 내는 일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WAKB는 세계한인방송국 협회로서 미국에 뉴저지에 등록된 법인이며 시카고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일반방송사들을 임원진에 포함시키는 등 네트워크와 방송교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2018 웨신총회 목회자수련회

주제 : 삶의 원천이신 나의 목자(시편 23:1~6절)

총 회장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제1부총회장



오상렬 목사
(승리교회)

제2부총회장



신인창 목사
(성암교회)

제3부총회장



김명환 목사
(생명샘교회)

총 무



김정욱 목사
(충일교회)

- 일 시: 6월 25일(월) ~ 27일(수)
- 장 소: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 주 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 해변길73 ☎063)580-0700 총무 010-2812-1746
- 문 의: 총회 02)835-2606-7
- 대 상: 총회산하 교역자 부부(목사,담임교역자)
- 회 비: 개인당 7만원, 부부 2인 1실 개인당 10만원
- 2018. 웨신총회 목회자수련회는 '유익한 특강과 뜨거운 영적충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웨신 강도사 연수교육

주제 :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 일 시: 2018년 5월 18일(금) ~ 19일(토)
- 장 소: 광은기도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54-2 ☎031)668-0550-3
- ① 대상자 : 2018년 총회강도사교사 합격자
- ② 각 노회 강도사, ③ 강도사 인허 예정자
- ④ 등록비 : 20만원
- 입금계좌 우체국 013821-01-002737
-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 접수 : 2018년 5월 11일까지
- 문의 : 총회 02)835-2606-7,
- 총무 : 김정욱 목사 010-2812-1746
- 둘째날 오전과 오후 주변 관광지 투어
- 준비물 : 아웃도어, 모자, 썬글라스, 워킹화
- 간식, 물품, 기념품, 경품 후원하실분 환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사무실:(우)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3층) ☎(02) 835-2606-7 Fax(02) 835-2608 http://ws21.org

목양칼럼 - 18 -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지나호 이어서...)

11.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이제 끝
 “육신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 5-9).

먼저 육신이란 몸에 죄성이 더해진 상태로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한 죄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 6) 라고 하심 같이 우리의 몸은 썩어질 육으로 났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썩어질 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몸 곧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원수마귀)는 우리를 주관하며 썩어질 몸에 죄성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롬 6: 12).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창 3: 14)고 하심 같이 원수마귀는 흙으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 14).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율법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롬 7: 18)고 고백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 25)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원수마귀에게 종 노릇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 4).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

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으므로 내주시는 성령님만 좇아 행하면 능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지배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 1-2). 죽을 몸이 있으므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죄성을 주입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즉시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2. 죄로 인한 죄절과 실패와 괴로움 이제 끝
 이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양, 세상과 육신과 죄와 원수마귀를 싸워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을 얻은 기쁨과 즐거움도 잠깐, 구원받았을 때 이겼다는 죄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한동안 우리를 찾지 않던 죄악들이 다시 찾아오므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죄인을 구원하려는 전도의 열심도 전과 같지 않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지는 것 같아서 괴롭고, 승리보다는 실패가 많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후부터 자신이 만일 죄악을 합하여 억누르지 않으면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매일 실패-성공, 성공-실패, 범죄-회개, 회개-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생활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인정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좌절과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죄짓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영만 목사

인천시영교회
JTNTV운영이사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승리자인 척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되고 슬픈 가혹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도저히 세상과 육신과 죄악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셔서, 이기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옛 사람이 이미 못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이제 자신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행할 때 온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약함이 좌절과 수치와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이제 그분이 자신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는 것과, 연약하고 무능했던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죄들과 능욕과 공핍과 압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 9-10)고 하심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연약함을 담당 하신 주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아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약함을 온전케 해 주실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고 행하므로 늘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2 (무한경쟁시대 미래 교육방향 제시3)

◆대학 경쟁력 강화 조건 '통폐합' =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핵심 이슈다. 전문가들은 미래 한국 고등교육의 변화에서 대학 통폐합(72%),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 혁신(54%)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시장 개방의 확대, 국제교류협력 확대 등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대학 정원율의 30%가 줄어들어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할 것과 글로벌화의 촉진으로 인한 교육개방으로 맞이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별 한국교육의 미래
 한국교육의 오랜 숙제인 ▲사교육 ▲입시경쟁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교육기회 불평등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문가들은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 함께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을 내놓았다.

◆사교육 = 사교육에 대한 의견에서 전문가들의 다수(70%)가 큰 변화가 없거나 사교육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30%는 공교육 강화로 인해 사교육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벌주의 = 학벌주의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도 학벌주의의 사회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58%로 과반수를 차지하나, 능력주의 확산으로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42%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능력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입시경쟁 =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74%)은 입시경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거나 일부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사회 전반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부대학 진학 욕구가 남아 있을 것이라 예측과 연관된다. 입시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서열화 = 교육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68%의 전문가들이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고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32%는 우수대학의 증가로 대학서열화가 약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각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소수 일류대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교육기회 불평등 = 학부모들의 교육기회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 우세 속에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성공지향적 수단주의 교육관이 유지되거나 고착된다는 전망이 46%를 차지하는 반면, 성공지향적 수단주의 교육관이 약화되고 소질·능력개발 위주의 새로운 교육관이 정착된다는 전망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양성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 교육 중요영역
 ◆창의성 교육 중요성 커질 듯 =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미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육적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미래 교육비전의 설정 및 교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래 사회 인재상에 부합한 창의성 교육을 중요시(76%)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생 교육보다 더 중시되는 것은 바로 교원의 교육력 강화다. 응답자 중 68%는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한국의 교육발전에 교원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래 교육에서도 교원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사회가 일류 학생을 요구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투자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안으로는 국가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장과 교사의 전근제도를 없애 장기간 한 학교에 근무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제도, 학습자 중심·핵심역량중심 교육이 중요하며, 또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 부규제와 통제가 좀더 유연해지고 개방화의 길을 따르도록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자율성 인정해야 = 고등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김창룡 목사
하나님디자인교회
JTNTV 상임이사

직결되는데, 한국에서 교육받은 대학생들의 능력이 국제경쟁력에 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의 마한가치로 대학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이 62%였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를 통한 대학 구조 혁신(54%),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36%)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 정책은 국·사립, 일반·전문 등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대학을 기능별로 특성화 하지 않으면 사회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특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제도와 학생 선발제도를 인정해야 대학의 자생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특성화 교육이 실행될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환경 바뀌어도 교원역할 변함없어 = 한국교육의 미래가 교원에게 달려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한 학습환경 구축, 원격교육·사이버 학습 강화 등의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역할은 변함없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정책과 관련하여서 전문가들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능력의 지속적 신장이 가장 중요(48%)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24%) 및 품격 높은 교직문화의 조성(22%)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대학 교원 정책과 관련하여서 전문가들은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교원을 연구·교육중심으로 전문화하고, 대학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교)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觀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영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흥성군 흥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명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벨엘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른(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별장·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담임 홍향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장한국 목사, 필리핀 남부지역 목회자들에게 예언의 빛을 비추다!

220여명의 교회지도자, 목회자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 강론



필리핀 선교팀 일행(강사 장한국 목사부부, 대한노회 임원 목사 3인, 강도사 3인, 주사랑교회 집사 2인)은 지난 4월 9일(월)부터 17일(화)까지 필리핀 남부 세부(Cebu), 보홀(Bohol), 보고시(Bogocity) 및 반타안시(Bantayan) 등을 순회하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 강론했다.

필리핀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와 국내외의 많은 교회들의 선교 영향으로 상당한 신학지식과 계시록 등을 많이 접하고 있었고 대부분 환란 전 휴거나 또는 아예 환란과 무관한 무천년주의에 얽매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강사로 나선 장한국 목사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많은 종말론자들이 예언한 빌레그레함 목사가 죽은 후 일주일 후 부활절인 3월 4일에 휴거를 예언했고, 또 다른 자들은 4월 초순에 원정폭발, 전쟁 돌발, 무정부 상태의 재난이 한국 등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 교회는 휴거되고 비 휴거자들은 이 고통의 눈 속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런 예언이 맞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아야 됴임이 얼마나 중요함을 opening message로 역설하였다.

깊은 감동이 솟아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
세미나 강의가 시작 되었을 때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잠시나마 마음 문을 닫은 듯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계속되는 장 목사의 영감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새롭게 깨달음과 깊은 감동이 솟아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세

미나가 끝날 때에는 장 목사를 통해 대언의 영으로 증거 된 말씀이 그들을 많이 변화시킴을 볼 수 있었고, 특히 Q and A 시간에 그들의 무장되었던 잘못된 사상이 깔끔하게 개혁되게 하심을 다 같이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첫 번째 세미나는 4월 11일(수) 보홀 북부에 위치한 "Reyna's Place" 세미나 룸에서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목회자들이 8명이 모여들었고 준비한 의자가 부족하여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만 했다. 장 목사는 현지 언어인 "비시어"를 사용하는 몇몇 목회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현지 목사 중 도마노 목사와 벤 목사를 통역자로 세워 통역하였지만 진리의 참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됨을 성령으로 인지한 후 통역 없이 하였다. 중요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 잘 깨달을 때까지 몇 번씩이나 설명하며 저들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세워주었다.

모든 참석자들에게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어
휴식 시간에는 몇몇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신들이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에게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한 목회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미나에 참석하였지만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씩 세밀하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처음이고, 또한 한국에서 온 목사가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며 직접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처음



이라 하면서 자신의 목회 현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고백했다. 두 번째 세미나는 4월 13일(금) 세부 "South Poll Central Hotel" 세미나 룸에서 세부지역의 목회자와 교회지도자 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관광 도시로 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그곳을 다녀갔기에 참석한 목회자들 역시 다양한 신학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방송시스템의 장애로 애로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케 하신 성령님은 선교단원을 파송한 모든 교회에 이러한 상황들이 메신저로 실시간 전달되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참석한 주의 종들 중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준비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대언의 영으로 장 목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단절되었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점점 아멘과 박수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장 목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환란은 단 9:27의 한 이레의 언약인 7년 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후 재림 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세 번째 세미나 장소는 세부 북부에 위치한 반타안으로 세부에서 6시간 가까이 차량과 배로 이동하여도

HOLY FAITH CHURCH



착했다. 4월 15일 주일 예배는 반타안 지역 목회자 대표인 페베 목사가 시무하는 Holy Faith Church에서 3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면서 대예배 설교자로 초청받은 장 목사는 사 60:19-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영어로 45분간 말씀을 선포했다. 특히 페베 목사의 딸인 로즈 양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자로 설교 말씀 중에 "Thy God shall be Thy Glory"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깨닫는 순간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

마지막 반타안 세미나는 15일(주일) 오후 4시부터 16일(월) 12시까지 1박2일간 "OG TONG RESORT" 세미나 룸에서 개최했다. 반타안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의 시골 읍 소재

지 같은 지역으로 목회자들의 모습은 촌로들처럼 순수하였지만 반면에 말씀을 듣는 영적수준은 너무도 어려서 쉽게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심령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볼 수 있었다. 장 목사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메모도 하며 Text book의 밑줄을 치거나 관련 성경을 찾아가면서 깨닫는 순간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장 목사를 통해 대언의 영으로 증거되는 말씀들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깨닫지 못해 답답한 부분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장 목사는 끝까지 그들의 질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질문한 사람들이 깨닫고 그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올 때까지 설명하고 설명해 주었다. 장한국 목사는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었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반타안 46명, 보고시 15명)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었다.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선교에 동참한 10명의 동역자들은 주의 재림과 환란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추수의 종들로 세우는 선교의 문이 더욱 확장되길 바라며 세미나를 통해 말씀을 들은 필리핀의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늘의 최고의 복인 첫째부활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역사가 계속되어지길 소망한다.
선교단원 취재 박민규 목사

목사코너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눅 24:36-48)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JTNTV방송 부이사장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어 인사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함을 아신 주님은 "나의 손과 발을 보라." 하십니다. 못 박혔던 자국이 있는 손발, 채찍 맞으셨던 주님 몸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임을 믿으리라. 주님을 영으로 나타내셨다고 환영으로 보거나, 또는 실재가 아닌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어 지리라.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 영의 현현이 아닌 신령한 영체요, 영광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고전 15:47-49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주님의 몸은 하늘에서 나신 영적인 몸이요, 물질계가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신 신령한 몸입니다. 이는 장차 우리들도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계시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며 구운 생선과 벌집을 받아 잡수십니다. 이는 혈육체와 달리 영체이신 주님 부활하신 몸은 잡수실 필요도 없고 소화하지도 않는 영생하는 몸이므로, 그러나 혈육체와 함께 공존하며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마실 수도 있으심을 보여주시며, 이는 천년왕국에서 부활체와 혈육체가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미리 계시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더하여 부활하신 이후 주님의 양식이 구운 생선과 꿀(벌집)이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구운 생선이 주님의 양식이 되심은 우리들을 구운 생선 되게 온전케 하심을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불에 우리 죄성, 정욕, 육적·세상적인 것을 온전케 다 녹여 없애는 온전케 세우심이 곧 우리가 구운 생선 됴임이요, 또 벌집의 꿀이 양식이 되심은 하늘나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꿀, 즉 단 것이요, 주님은 우리로 이 단 것을 주시는 분이되심을 계시한 것입니다(사 5:2 참조).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 관해 증거하는 것이요, 이 성경을 친히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 지각을 열어 풀어주십니다. 이와 똑같이 주 재림에 관한 비밀 예컨대 일곱 영, 일곱 우레, 일곱 촛대의 비밀 등도 다 깨닫게 또 우리에게 이휘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친히 목도·경험했으니 '너희가 이런 일의증인이니라.' 하십니다. 더욱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종말의 두 증인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장한국 목사 초청 필리핀 선교대회 세미나 열어

필리핀 남부지역 220여명의 목회자들에게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예언의 빛을 비추다!

강사
장한국 목사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새부시집회

대한노회 주사랑교회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19,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031)424-7612 담임목사 장한국 H.PO10-4436-7060

http://www.mokpojuan.com

교회를 섬기는 분

- 부 목사 모정선, 박민수, 성남수, 모성은
- 협동 목사 장정화
- 전도사 윤영옥, 송선택, 띠베트남·신학교(유학)
- 협동전도사 추정희
-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김미경
- 사무장로 송영문, 천은상, 정승만,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 협동장로 이병화
- 은퇴장로 고재연, 원복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 주일밤예배 오후 7:0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겨울 7:00)
- 새벽예배 오전 5:00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 061)272-4908, 팩스: (061)276-1006

절대강국을 꿈꾸며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내에 먼 길을 달려왔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크게 성장하여 지금은 세계열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불과 65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수혜국이던 가난한 나라가 역사적 기적을 이루며 독특한 방법을 통해 기반을 닦더니 이제는 크게 성장하여 당당히 원조국으로 부상했다. 이렇듯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신분이 바뀐 유일한 국가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처음 아닌가 싶다.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맞서는 경쟁력을 갖추었고 이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의 황대자로 급부상 할 것이며 세계를 주도하는 막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용선 목사
본설위원



대한민국은 강자를 넘어서 절대강국이 되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절대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절대강국으로 가는 길에는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국토를 노리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대립 국면도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 또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살아남고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방에서도 최강자가 되어야 한다. 세종대왕이 절대강국을 꿈꾸며 비밀병기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국가가 되고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가 필요

‘절대강국 KOREA’를 꿈꾸며 우리의 미래를 향해 비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력과 현실과 같음을 조장하는 그 어떤 장벽도 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앞에 펼쳐진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와 무기 산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진 부분은 속히 만회하고 추월하여 일등 국가를 일구어내야 한다. 인재육성은 물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야 하며 그동안 취학했던 노벨상도 이전 우리가 힘쓰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야 한다.

지혜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한다.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천년 유구한 역사를 지니오면서 천 회가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고 수탈과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했다. 물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초개 같이 내던지며 산화하신 분들도 많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꿈만 꾸고 끝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강대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분야별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미래 선진 조국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초인류 국가를 이룰 것이며 미래 강국으로 급부상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바로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국력이 약했기에 우리 민족은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야만 했다. 그랬기에 이제 우리

가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초개 같이 내던지며 산화하신 분들도 많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적인 복

마라나타!!
엡 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흠정역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믿는 사람들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다.

자로 예정하셨다(엡 1:4~5).
하나님의 양자의 영적인 복을 받은 후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 그뿐 아니라 온갖 지혜와 명철을 넘쳐도록 주셨다(엡 1:8). 이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양자

고난과 고통이 오는 삶이 다가올지라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어린이 때의 말을 버리고 행동을 벗어 버려야 한다

로 선택 받은 상태에 있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인의 삶이다. 이미 주시되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넘쳐도록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또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형통한 삶이 되어질 때나 고난과 고통이 오는 삶이 다가올지라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어린이 때의 말을 버리고 행동을 벗어 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거룩히 구

원장 김수정
작은 구름의 집 대표



태에 이르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께서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가 그 정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라라는 단어가 명령문이기도 하고 직설법 미래 중간 디포이기도하다. 완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 (히 2:10~12).

셋째로 하나님의 양자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가므로 주님의 형제가 되어지는 상

I. 들어가는 말 칼빈의 설교관(說教觀)

설교에 대한 인식은 그의 설교 사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설교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도 설교자로서의 자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대한 인식은 그의 설교 사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목회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목회자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살펴보면 칼빈이 인식한 설교와 설교자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의 실제 설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격주로, 주일에 두차례(신약과 시편에 관하여) 그리고 주 중에는 매일 설교를 했다. 그는 불어설교했다.

그 자신의 시대나 그가 고인이 된 이후 수십년 동안, '기독교 강요'가 인기를 얻었던 것도 그의 설교 때문이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자주 그의 설교를 강단에서 낭독하곤 했다.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는 설교 없는 종교 개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종교 개혁

칼빈은 종교 개혁 당시 교회의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임 틀림없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와 신구약 주석을 통해 신학자로서 주석가로서 널리 알려 졌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통해 종교 개혁의 큰 이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로서의 칼빈보다는 신학자요 주석가요 행정가로서의 칼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의 설교 사역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는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타락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진리이며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시나 오늘이나 본질상 변화된 것은 없다.

우리가 칼빈의 설교를 살펴보는 것은 그 설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칼빈이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설교자로서 그는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아 오늘날 우리의 설교에 대한 자세에 도전 삼고 성경적 칼빈주의적 설교로 돌아가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시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 말씀의 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종교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

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종교 개혁의 큰 일을 수종들고 있었던 것이다.

역자로서 헌신했던 한 시대의 개혁자를 통해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자 함이다. 최근 칼빈의 설교에 대한 연구가 확산 되면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이해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칼빈의 설교집이 속속 출판됨으로써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면모를 다시 대할

서명범 목사
예수매일처지



수 있게 됨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II. 본 말

1. 칼빈의 설교자(목회자) 직분에 대한 인식

1) 하나님을 대표하는 설교자
우리는 칼빈의 설교의 연구에 앞서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에 대한 칼빈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설교자에 대한 칼빈의 인식은 그의 설교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의 권위가 있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권위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 4권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권위를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이 권위를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WS WRTS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업,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WS WRTS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성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종교개혁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8 동여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일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에녹부흥신학 모집

설립자 / 대표 이사장 학장 / 이사 이 사 부학장 / 이 사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 이요성 목사 임순학 박사 정기남 목사 김영욱 박사 김영애 전도사

교 수 진

박영민 교수, 임순학 교수, 김영욱 교수, 김선우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모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김정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이선한 교수, 김지연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교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차류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환영

저희에녹부흥신학은

- 교육은 방학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육하고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총)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녹총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식 회원 교단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 부흥사 및 애능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에녹부흥사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인천)등불교회.
· 주소 :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백보 양보하는 지혜 성경: 잠언 17:1-4 찬양: 336장

다름은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교만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거시기 거건데 이 조그만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기주장을 서로 내세우다보니 다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기본 자세 중의 하나로,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십니다(빌 2:3). 다름이 발전하면 자연히 성을 내게 마련인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약 1:20).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너무 주장하다 다름으로 발전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화평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의 영광도 사라지고 인간의 추악함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은 성도로서는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백보 양보하여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말다툼도 하지 말 것이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풀어야 합니다(엡 4:26).

제목: 우매자를 멀리 하세요 성경: 잠언 17:19-25 찬양: 375장

어리석은 자는 뇌물을 받고 재판관을 굽게 합니다. 인간은 매순간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매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함으로 재판관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어렵게 덮어버립니다. 인간이 부당한 욕심으로 멸망을 자취했는데, 그 후손 모두가 조상의 유전형질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헤치므로(시 26:10),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는 수단의 하나님 뇌물도 금하신 것입니다(출 23:8).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

고 재앙이 되어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합니다(잠 19:13).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우매자를 멀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제목: 지혜로운 입술이 됩시다 성경: 잠언 18:21 찬양: 329장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언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어로 자신과 통할 수 있고, 지정을 가져서 인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사 43:7). 특히 그것이 마음의 표시인 언어로 표현되기를 원하시고(벧전 4:11), 자발적으로 자신이 알고 느낀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행 20:20). 그러나 입술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지닌 악한 자는 선한 말로써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주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자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므로 주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명철을 지키는 자 성경: 잠언 19:8-12 찬양: 295장

세상에는 헛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의 명철입니다(잠 9:10). 이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주의 은택을 입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주어 주어 하고 말로만 주를 찾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진리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마 7:21).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약 2:26).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자는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즉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지켜 실천하는 자입니다(롬 12:1~2).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주를 경외함 성경: 잠언 19:23-29 찬양: 246장

사람은 흠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인격체로 지어진 이후에는 영벌이든 영생이든, 어떠한 상태든지 영원합니다(마 25:46). 그러나 지옥의 영벌을 받으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전 3:11). 하지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예비하신 여호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요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시 10:12). 여호와를 모르면 경외함 없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잠 9:10).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전능자를 경외함으로 온전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함담치 못한 행위란 성경: 잠언 20:19-22 찬양: 516장

본문에서 함담하는 자란 남을 중상하고 고자질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함담꾼을 말합니다. 입술을 벌린 자란, 다른 각도에서 성도를 죄악으로 유혹하고 아첨하는 말로 피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과 사귀는 것은 성도로서 함담치 못한 행위입니다. 성도는 바르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지게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롬 16:17~18). 이단에 속한 사람도 한두 번 혼계한 후 멀리해야 합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삼가며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삼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을 껴챌지 말고 지혜로운 행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 잠언 21:5-8 찬양: 429장

모든 풍부를 주시는 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삼상 2:7).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임의로 행할 수 있지만 그 대신 그가 주인의 복을 받으려면 주인의 뜻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그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풍부함을 얻으려면 주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엡 5:10). 사람이 일평생 누리는 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 풍부함을 누리는 것은 천국의 풍요를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 풍부함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구나 더 가치 높은 영적 풍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골 1:29). 오늘도 부지런함으로 영적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나를 지키는 일! 성경: 잠언 21:23-28 찬양: 382장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지정을 갖춘 훌륭한 인격체이기는 하지만, 흠으로 된 피조물이어서 연약하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른 더 강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칭하여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사 42:10). 그러나 그러자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

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긍휼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심 받은 자의 여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스스로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마 12:36).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의 말에 준하여 인간적인 도움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엡 4:25).

제목: 마음의 정결을 사모함! 성경: 잠언 22:9-13 찬양: 595장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엡 5:26). 그러나 우리는 분성과 옛 습관이 남아있는 미련한 자들이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여 도로 더러워집니다(잠 26:11).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주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노력하여야 합니다(요 13:10). 또한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마 25:21). 성도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부모의 의무 성경: 잠언 23:12-16 찬양: 205장

현대의 사회도덕이 땅에 떨어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의 세속 교육철학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판단력이 미숙하고 경험부족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자극수단인 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매를 야기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였고(잠 13:24), 잘못이 심할 때는 체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물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13~14절). 현대교육철학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모나 스승의 정당한 교육권까지 박탈해버리면, 오히려 그들이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되므로 바른 징계가 필요합니다(히 12:5~11).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의 말씀과 정직하고 마땅한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요삼 1:3).

목/회/칼/럼

갈렙의 재산

기업 건강 믿음 성실 재산 (본문 : 수 14:6-15)



소진우 목사
신분방송 사장
(예복교회 담임)

1. 성실한 마음(6-7)

갈렙은 열두 정탐꾼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그들 중 열 명은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아나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여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성실치 못한 사람은 악평하기를 좋아하며 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성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 그에게는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는 성실한 인격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2. 온전한 믿음(8-9)

열 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믿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법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좋다고 하시니 그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그로 살아남아 가나안을 누리게 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재산이 됩니다.

3. 젊음의 건강(10-12)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였는데 이제 세월에 흘러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창 젊은이의 건강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 사람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또 그 장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에게는 건강이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었기 때문입니다.

4. 영원한 기업(13-15)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허락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45년 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허락 받은 기업일지라도 피흘리는 정전을 통해서 받았습니.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고 정전은 끝났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즉 평화가 깃든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준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그가 남긴 귀한 재산입니다. 후손들이 여기에서 자자손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분 칼럼리스트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6-28	다시말교회(방종현 목사)
29	군산예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장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안양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9	살롬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심방)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1-23	총회(성경대학)
28-30	행복예수원교회(이명진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4	거룩부흥교회(예복교회)
26-30	은사리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종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함양산기도원(이영근 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총만교회(김옥남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불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경원 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 목사)
17-18	장기노회
18-20	안대교회(홍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2	네팔선교지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홍준호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8	빛과사랑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서재세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속심)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6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0-12	사랑의교회(고정익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24-28	선교지선학여행(여름세미나)
3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7년 8월	
3	안양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임이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함양산기도원(이영근 원장)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1-24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7년 9월	
4-8	온누리복음화회의회수련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종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환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장기노회
16-18	주사리교회(조영욱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용순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살롬교회(고정익 목사)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2월	
5-8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2-17	설주간
19-21	점촌교회(김원우 목사)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2018년 3월	
1일	안양갈렙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4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8년 4월	
1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일-4일	공평성결교회(조재용 목사)
9일-11일	산돌교회(한상길 목사)
16일-20일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8일-5월 9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8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	안양갈렙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14	오산리금식기도원(경원 원장)
16-24	미추지구 부흥회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동창교회,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국내외 선교사역에 불타고 있는 동창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은 동창교회 성도들과 담임 이효종 목사는 지난 4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 장터 바자회를 가졌다. 이날 바자회가 열린 곳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자리한 동창교회 앞마당이다. 시골 장마당을 방불케 하는 사랑의 바자회는 시끌벅적했다. 동창교회 이효종 목사는 지난 10여년 간 바자회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김없이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에 의하면 바자회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금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 선교와 국내 산간 도서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기도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목사가 시무하는 동창교회는 1965년 설립되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53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2000년도에 제 9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긴 세월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국내외를 아우르며 열정적이며, 공격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고 했다.

동창교회가 이처럼 선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 가운데... 첫째는, 말레이시아 오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맨발로 10키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신

발을 신고 다니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따라 신발 500 켤레를 전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둘째로는, 도시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의 헌신에 있었음을 알고, 비록 동창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빛이 된 자 된 마음으로 국내 산간 도서지역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효종 목사의 목회 철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역으로 나뉘었던 시스템을 성경의 사도들의 이름으로 바꾸고,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약 27개 정도의 나라 이름 아래 모든 성도들이 소속되어 기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효종 목사는 고백하기를 "동창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왔고, 사랑이 많아 넘치며, 무엇 하나를 해도 협력해서 같이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며, 하나님이 나를

짜사랑 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짝사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산지사장 백운성 기자

엘리아불기도원 이전기념 부흥성회 가져

전주시 완산구 거마남로51 소재 만나교회 담임 백익삭 목사, 엘리아불기도원 원장 조명희 목사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고창에서 이곳으로 옮겨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앞서 김선우 목사의 찬양인도가 있는 후 이석환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정사라 목사가 기도, 특별찬양에 김선우 목사, 말씀증거에 국제예능부흥사회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행 9:31절을 중시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뜨겁게 설교했다.

이날 꼭 목사는 기도원의 사명은 첫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며, 둘째로 능력 있는 사역이라고 했다. 셋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이곳을 찾는 많은 심령들이 기도의 불이 붙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원이 성숙되고 성장되면서 큰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



며 강조했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예능부흥사회 고문 정기남 목사가 축사를, 예능부흥사회 부총재 윤동훈 목사가 권면하고, 김지연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는 후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국제예능부흥사회주관으로 시작된 은혜충만 심령 부흥성회가 지난 4월 15일(주일 저녁)부터 4월 18일(수) 저녁까지 진행되었다. 이 주간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원

단장 김창숙 목사가 몸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며, 감사단장 김선우 목사가 찬양을 인도했다. 강사는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부총재 광영민 목사, 부총재 윤동훈 목사, 수석상임회장 최동준 목사, 감사 전길수 목사, 상임회장 김해중 목사, 사무처장 정사라 목사, 재정부장 김지연 목사, 총재 이흥희 목사 등이 시간시간 뜨겁게 성회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끼친 후 마쳤다.

인천제일교회 목사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

한창환 시무장로, 정성우 안수집사, 김인식 명예장로등 새 일꾼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제일교회(담임 이흥선 목사)는 목사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를 지난 28일 오전 11시, 인천시 남구 인화로 소재 본당에서 경건히 드려졌다.

1부 목사 위임식, 2부 장로 집사 임직 및 명예장로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임국장 최윤길 환경노동장 사회로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한호범(아멘교회당회장)목사의 성경봉독(삼하6:22-23), 김진경/서보경 천양선교사의 찬양으로 이어졌으며, 노회장 최윤길 목사가 "하나님의 중"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위임국장의 이흥선 담임목사와 교우에게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을 치룬후 위임패 증정이 있었으며, 김수일(주은교회 당회장)목사의 권면과 고재동(동천교회 원로)목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이흥선 담임 목사의 답사를 전한후 사회로 최윤길 목사의 축사로 1부예를 마쳤다.

곧바로 당회장 이흥선 목사의 사회로 이어진 제2부 임직 및 취임식은 한호범 목사의 기도, 김낙선(광성교회당회장)목사의 성경봉독(삼하6:22-23), 김진경/서보경 천양선교사의 찬양으로 이어졌으며, 노회장 최윤길 목사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고재동 목

사가 "기동같이 여기는"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당회장의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례(안수기도, 성의착의식, 약속례), 공포등 각 직분에 준한 의식을 치룬후 한창환 시무장로, 정성우 안수집사, 김인식 명예장로 등 3인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으며, 임직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최윤길 목사가 권면을, 김수일 목사가 각각 축사했으며, 곧 이어 당회장 이흥선 목사의 인사 및 광고를 전한후 고재동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신병협 안종욱 기자>

한국기독교연합 회원교단장 간담회

16일 서울플라자호텔 40여 명 참석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4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교단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하고 식사와 선물비 등 일체를 후원한 한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임원회에서 한기연의 진로를 놓고 논의하는 중에 대표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한국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기연이 바



로 서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더욱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뜻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 교단장

들을 모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훈 목사는 한기연 사업 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대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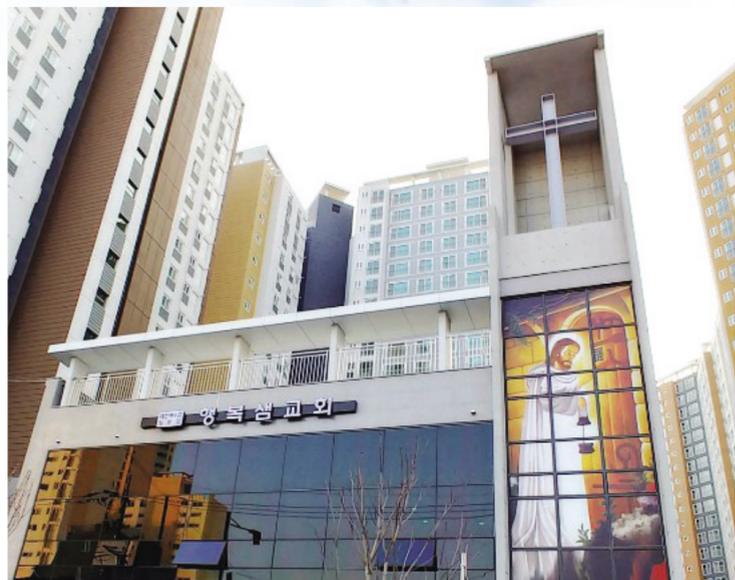
장 이동석 목사에게 전달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이날 간담회를 후원한 한영훈 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기연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건강한 연합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교단들의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를 비롯해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2대 박위근 목사, 3대 한영훈 목사, 5대 조일래 목사 등 중경 대표회장 박석대 총장 장중현 목사, 세기총 중경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변재운 국민일보 신임사장,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과 회원교단 총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행복샘교회 2018.5.8일(화) 새 성전 헌당예배

행복샘교회 2018년도 표어 : 좋은 만남 행복한성도 (신명기 33:29절)



담임목사 박수영 행복샘선인치유센터원장

강사 박수영 목사 목사약력

- 한국여목성장학술원 원장 · 중부노회 노회장
- 지저스타임즈 부시장 및 대구지사장
- 한국기독언론부흥사협의회 수석상임회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인사 말씀

교회는 열심과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에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헌당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 주신 교단산하 전국교회들과 지역내 여러교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복샘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전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성전을 헌당할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말씀전파에 헌신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도관달과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복샘교회 박수영 목사 드림

예배시간 안내

- | | |
|----------------|----------------|
| 주일오전예배 오전11: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
|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
|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
|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